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퓨리나 15지구 대영목장 우수목장의 날 행사 열어 4톤 납유의 비밀 공개



대영목장 김영호 사장님 내외와 퓨리나사료임직원

2013년 4월 25일 - 퓨리나사료 (대표:이보균, www.purinafeed.co.kr) 15지구(영업이사:정진남)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영산포 농협에서 “4톤 납유의 비밀”이란 주제로 “대영목장 퓨리나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지역 사양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낙농 사업의 열정과 보다 높은 유생산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퓨리나 나주특약점 심재식 사장은 “불황과 호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오늘 참석자 중 30%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 사업에 확신을



대영목장 우수목장의 날 행사 전경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김정훈 기술연구소 축우담당 박사는 “세계 낙농

목장 현황	착유우	105
	평균유량	40.2
	일 납유량	4,221
	평균산차	3.3
	305일 평균	10,633

[사료비 공제수익]
100두 40리터 착유시 월간 6,939만원
연간 7억 55백만원 수익

현황과 전망”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육 규모의 변화를 보면 100두 이상의 착유 농가가 0.3% 밖에 되지 않지만, 사육두수는 16%, 유 생산량의 자체는 33%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대규모화 되고 있다. 생산비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유 생산산성이 떨어지는 농장일수록 생산 효율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국내와 유사하다고 보여주었다. 김박사는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투자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두현 퓨리나 축우판매부장은 대영목장(대표: 김영호, 조정자)의 사례를 들며 “4톤 납유의 비밀”이란 주제로 경쟁력 있는 낙농사업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전달했다.

대영목장은 1978년 송아지 2마리를 사육부터 시작하여 현재 170두 규모에 착유100두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도, 착유 100두에 검정 성적이 평균 34리터 납유의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두당 40ℓ 4톤 납유만이 나아 가야 할 길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목장의 준비했다.

지난 1년간 각 구간별 급여 관리, 사양, 환경 및 개량 관리까지 준비하여 2013년 2월 검정성적 100두 평균 40.2ℓ 드디어 4월 17일에는 107두 착유에 4,549ℓ 납유 두당 42.5ℓ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부장은 “40ℓ 납유 평균 두당 유사비가 15,344원”이 적용되어 소와 원료에 대한 정확한 분



대영목장 김영호 사장님 내외분(전남 나주시 공산면)

석을 통한 허실 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완벽한 영양을 한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익면에 있어서도 “35ℓ 착유 때 보다 40ℓ 납유 시 생산비의 추가 비용은 6% 증가하였지만, 농장의 수익은 48% 증가”함을 설명하며 동일 환경에서의 착유두수 증가 및 생산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대영목장의 비밀은 무엇 보다 충실한 기본관리/체계적인 계량목표/완벽한 영양 공급/사장님의 관심이 함께 어울려져 나타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는 “엑셀런트급 우군 구성 및 착유두수 130두에 5톤 납유”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에 대영목장의 우수한 사례를 알이며, 기본 사양관리의 중요성과 불안한 낙농시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 퓨리나사료는 불황을 함께 이겨내고 지속적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 “발효대두박”(soytide)사업 확대 전략적 투자 추진

- 약 3년간의 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수준 제품경쟁력 확보
- 2020년까지 글로벌 매출 5천억 규모로 확대 목표



CJ제일제당 (대표 김철하) 소재사업부문은 최근 어분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발효대두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 발효대두박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은 기존 5천톤 규모인 국내 공장을 연내 1만톤으로 100% 확대한 후,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북미/남미,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2020년까지 단백질 원료사업 분야 글로벌 No. 1 사업 및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두박은 콩에서 기름을 짠 후 남은 부산물로, 현

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축용 단백질 원료이지만, 어린 가축이나 양식 어류가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어 기능의 확대 측면에서 제약사항이 많았다. 이에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은 3년 간의 집중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대두박을 청국장균으로 발효하여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 함량이 기존 대두박보다 약 10% 높은 고품질 단백질 원료인 “Soytide”를 2010년에 출시하였다.

“Soytide”는 유산균을 이용한 저급의 발효제품과는 달리 동물과 인체의 건강에 유익한 청국장균을 활용한 고품질의 “Only One”적인 제품으로 그 우

수성과 차별성이 입증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자돈사료를 중심으로 양어, 양계 사료로 점차 확대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주고객은 글로벌 사료기업인 카길(Cargill)이다.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은 국내 생산으로 약 3년간의 시장 검증을 통해 당사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발효대두박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국내 생산규모 증설을 통해 국내외 거래업체 요청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미개척 시장인 일본을 하반기 내 공략하면서 14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현지에 구축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술 측면에서

는 글로벌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다각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확보된 다양한 축종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양결과와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와의 사양결과가 추가로 검증된다면 "Soytide"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전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은 2013년 3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VIV Asia 2013 (아시아 축산 전시회)에서 전 세계 양축사료 전문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소이타이드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두산생물자원

두산생물자원 축산농가와 프로야구 관람

두산생물자원(주) 영업본부(본부장 엄태봉)는 5월15일 전국 7개지역 240여명의 축산농가를 모시고 프로야구 관람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두산생물자원이 축산농가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행사로서 축산농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지역별 축산농가들은 바쁜 일과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갖을 수 있어 좋았고, 또한 타 지역의 업계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뻐하였다.

두산생물자원은 사료 전문회사로서 축산농가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